



故 서장석 님

‘아름드리기금’은
故 서장석 님의 가족, 제자, 지인들이
고인의 뜻을 기리며 후학 교육 사업을 위해
만든 추모기금입니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산에 언덕에

신동엽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애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이아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 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 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애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望”

일생 가슴에 품은 글자, “望”

경기고등학교 졸업식 날, 세상을 향한 열정으로 평생 마음에 품을 말 한마디씩 칠판에 적자고 객기 아닌 객기를 부렸을 때 고등학생 서장석이 쓴 글자는 “望”이었다. 이는 늘 소망을 품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를 담은 한 글자였는데, 실제로 서장석은 일생동안 교육자로서, 그리고 아버지이자 아들, 남편으로서 내일의 삶에 대한 굵히지 않은 소망의 빛을 향해 올곧게 노력하고 이루어간 사람이었다.

서장석은 1923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서 태어났다. 백일이 지났을 무렵 독립운동을 하러 중국으로 망명한 아버지를 따라 북경으로 갔다가 3살 되던 해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이후 아버지는 중국에서 행방 불명이 되어 오늘까지 그 소식을 알 길이 없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기에 너무 어렸던 서장석은 안타깝게도 아버지 대한 기억을 하나도 갖지 못한다.

“어린이의 힘이 나라의 힘”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수재 소리를 들던 서장석이 일관되게 가졌던 장래 희망은 ‘교사’였다. 7살 때, 교회 주일 학교에서 한 아저씨가 동화를 들려주며 어린이의 힘이 곧 나라의 힘이라고 강조했던 것에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 아저씨가 소파 방정환 선생이었다는 것을 안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서장석은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지만, 오래 한번쯤 응시해보지 않은 법관의 등용문 고등문관 시험을 치르지 않고 바로 교사의 길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서장석은 “교육자가 되어 이 나라에 독립을 가져올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길을 생각 해본 적도 없었고 또한 일제 시대에 고등문관이 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서장석은 본인이 다른 길에 욕심내지 않고 평생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훌륭한 인재들을 키우며 보람을 느끼고 또 YMCA, 보이스카웃, 적십자 등에서 청소년 운동의 지도자로 봉사하는 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성스런 기도와 올곧은 모범으로 키워주신 어머니 덕분이었다고 늘 말했었다. 어머니는 자기와 같이 아무 재주도 없는 사람이 남편도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 오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교육자로 키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자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안 되었을 거라며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한다.



서장석은 일과 학업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의 아버지였는데, 장성한 후에도 일에 충실한 것이 최우선이라며 자신의 회갑은 물론 칠순, 팔순 잔치 때에도 직업상 외국에 있는 장남이 귀국하는 것을 말렸었다고 한다. 장남 서대원이 뉴욕 주재 유엔대사로 있을 때 “국가의 돈을 받는 사람이 사적인 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기 좋지 않다”고 해서 생신을 아예 뉴욕으로 모셔서 치룬 일도 있었는데 “그 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함께 축하해주었던 것이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며 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모범 가정, 정도 가정

서장석이 경기고에 다니던 통학 전차 안에서 유난히 눈을 끌던 고운 외모의 여학생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내로서 평생을 같이 한 만려자 박상의 여사이다. 본인도 그 어려운 시절 서울대 사대 전문부까지 나온 엘리트 여성이었지만 교육자의 아내로 일생을 산 ‘숨은 교육자’이다.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는데 감정 표현이 많지 않고 엄한 아버지였던 서장석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교사 살림에도 아이들에게는 넉넉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 꼬마 신사처럼 넥타이까지 매서 사진을 찍어 주었는데 가족들은 집안 형편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부잣집 아들들인줄 알았을 거라며 웃는다.

늘 공부하며 나이먹는 사람

교사 서장석은 스스로 공부를 즐기며 나이 먹어서도 면학열을 식히지 않았다. 중화민국 중화학술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비롯하여, 55세에는 한양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거쳐 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특히 대학원 입학 시험을 볼 때 시험위원이 제자여서 서로 한동안 쑥스러웠다고 실토했던 적이 있는데, “학문이란 평생하는 것 아닌가. 제자로부터 배운다고 뭐 부끄러워할 것이 있겠냐”면서 학문은 항상 겸허한 기분으로 해야만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서장석 장로

서장석과 종교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머니 모태 신앙으로 시작된 기독교와의 인연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 장로로 그의 일생과 함께 하였다. 가족들 기억 속의 서장석은 기독교적인 심성으로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남편이요, 아버지이다. 불평하거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비판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아름드리 나무처럼

서장석은 2003년 9월 13일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빈소에는 평생 교육계에 몸담았던 고인의 수많은 제자들이 손과 마음을 보태어 유족들은 과분할 정도로 위로를 받았다고 감사해한다. 특히 제자 중에서도 학창 시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장석의 지도로 용기를 얻어 정진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을 전한 제자들이 여럿이어서, 가족들은 슬픔 가운데에서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벽찬 감동을 받았었다고 한다.



故 서장석 님 약사

23년 출생 [학력] 41년 경기공립중졸 43년 경성대 예과졸 47년 서울대 법학과졸 80년 명예철학박사(중국학술원) 81년 법학박사(한양대) [교육활동] 48년 경기도 교사 61년 경북고 교사 63년 덕수중 교감 64년 서울시 교원중등교육과장 66년 통시청각교육원장 68년 문교부 장학관 69년 경기도 교장 79년 서울시 부교육감 80~85년 서울교대 학장 81~97년 한양대 강사 81년 전국교육대학연합회장 84년 서울시 교육위원 88년 현대고 교장 90년 아주대 대우교수 [사회활동] 72년 조정협회장 77년 중·고교지방경기연맹 회장 80~83년 보이스카우트 서울연맹위원장 81년 유스호스텔협회장 81·84년 서울 YMCA 이사장 81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겸 지회장 86년 국제와이즈맨 한국중부지구 총재 90년 대한노인회 중앙회 감사 94~97년 동부회장 [상훈] 녹조소성훈장,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시 문화상

'아름드리기금' 소개

'아름드리기금'은故 서장석 님의 가족, 제자 등 지인들이 후학 교육 사업을 위해 평생 교육계에서 제자들에게 아름답기 나무처럼 그늘이 되어준故 서장석 선생님의 뜻을 기려 '아름드리기금'으로 이름 지어 아름다운재단에 만든 추모기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가 평생 보람으로 느낀 일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기로 마음을 모으고, 조의금 전부를 고스란히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확실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마음의 헌화 _ 아름다운재단 '추모기금'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늘 다른 이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뒤에 남은 이들이 그리움과 슬픔을 사회적으로 승화시키고 고인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추모기금입니다. 추모기금은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르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 아이, 아내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업'을 쌓는 기금입니다.

추모기금 이렇게 만드세요



1. 기금개설을 위한 상담을 받습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기부 자산의 종류와 일정 상담

2. 기금개설 후 운영방식, 지원분야를 정합니다

기부자가 원하는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부가 쓰일 수 있는 방법 논의

3. 기금개설 협약서 작성과 전달식을 갖습니다

기부자와 아름다운재단 간 상호 지원사업, 기금운영방식에 대한 약속을 담아 기부자와 함께 전달식 진행

4.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매년 기금운영 보고서를 받습니다

기금운용과 지원사업 보고 및 차년도 지원사업 논의

상담 및 문의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센터 B

전화 | 02-730-1235 (내선 132, 243, 244)

온라인 상담문의 | www.givingb.org

*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센터 B는 사회적성공을 이루신 분들의 나눔 실천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구성된 기부컨설팅전문가그룹(Professional Advisory Group)을 운영합니다. 기부컨설팅센터 B는 기부자의 다양한 자산보유 형태와 생애 계획에 맞춰 도움이 필요한 사회 각 분야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연결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8월에 설립하였습니다.



110-260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3 Tel 02-766-1004 Fax 02-3675-1230

E_mail give@beautifulfund.org Homepage <http://www.beautifulfund.org>